

한시에 나타난 임진왜란의 체험과 기억

구본현*

- I. 서론
- II. 전란의 참상에 대한 회고
- III. 전사자와 희생자에 대한 추모
- IV. 일상의 회복에 대한 희망
- V. 결론

<국문초록>

전란은 죽음, 이별, 기근, 질병 등을 아우르는 최대의 재난이다. 인간의 정신을 극단적으로 파괴하게 만들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전란은 문학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이 논문은 임진왜란을 몸소 체험한 시인들이 전란 후에 창작한 한시를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임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임진왜란의 체험과 기억을 담은 한시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전란의 참상을 회고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전란의 비극성을 장면 묘사로 형상화한 단형의 작품들을 고찰하였다. 이들 한시는 불변하는 자연물과 폐허가 된 터전을 대비하는 방식, 두보(杜甫) 등 전란 체험을 극적으로 시화한 작품을 용사(用事)하는 방식 등의 표현 양상을 보인다.

둘째는 전사자와 희생자를 추모한 작품들이다. 전사한 장수와 의병장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 많지만 이해수(李海壽)와 구사맹(具思孟)이 무명의 의병과 절개를 지킨 여인, 가족을 위해 희생한 효자와 열부 등을 기려 창작한 수십 편의 연작 추모시가 주목된다.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셋째는 전란 후 일상으로의 복귀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에는 생존의 안도감과 함께 과거와 달라진 현재에 대한 낯섦, 미래에 대한 불안한 희망 등이 나타난다. 이상 세 종류의 작품은 전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란의 참상을 기록으로 남겨야 후대에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것이 희생자를 위한 최소한 책임이라는 인식 또한 전란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핵심어: 재난, 전쟁, 임진왜란, 한시, 체험, 기억, 추모, 일상의 회복

1. 서론

인간의 역사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전란이다. 소수 지도자의 오판으로 이루어지는 전란은 불특정 다수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생명과 재산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 죽음과 이별은 모든 인간의 숙명이니 감수한다 치더라도 일부에게만 닥치는 수재, 화재, 기근, 질병 등의 재난은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전란은 이 모든 비극을 망라하기에 이로 인한 참상과 슬픔은 형용이 불가하다. 전란의 상처는 궁극적인 회복과 치료가 불가능하겠지만 감정을 토로하여 공감과 위로를 얻는 것으로 슬픔을 덜 수는 있을 것이다.

인간을 극단적 비극으로 몰아넣는 전란은 그리하여 문학의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가 된다. 가장 큰 슬픔이 가장 훌륭한 문학의 소재가 된다는 것은 역설이지만 “나라가 불행해지면 시인이 행복하다”¹⁾는 언급처럼 전란의 체험은 시인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전란이 없었다면 두보는 시성(詩聖)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시사(詩史)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 전역에 큰 재난을 불러온 임진왜란 또한 문학의 주요 소재가 되었

1) 淸 趙翼, <題元遺山集>, 『甌北集』 권12: “國家不幸詩家幸, 賦到滄桑句便工.”

으며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다. 전란의 체험과 기억을 담은 문학은 대개 소설 등의 서사 갈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생전>, <최척전>, <임진록>, <김영철전>, <임경업전>, <박씨전> 등은 전란의 참상을 묘사하는 동시에 상상과 허구를 섞어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창작되었다. 전란의 책임을 밝히려는 비판적인 시각 아래 창작된 <달천몽유록>, <강도몽유록> 등의 몽유록과 최현(崔暉)의 <명월음>과 <용사음>, 박인로(朴仁老)의 <태평사>와 <선상탄> 등 전란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사도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전란 체험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실기도 역사와 문학 양 분야에서 자세히 검토되었다.

한시의 경우에는 허균의 <노객부원>과 이안눌의 <사월십오일> 등 장편의 서사시가 주요 연구 대상이 되었는데 서사성이 약한 절구나 율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공교롭게도 임진왜란 직전은 목릉성세라 불리는 한문학의 전성기였다. 이 시기의 주역들 대부분이 임진왜란을 체험했으며 전란의 와중과 직후에 다수의 서정적인 한시를 남겼다.

이 글의 목적은 임란 이후 전란의 체험을 회고하거나 전란 이후의 삶을 읊은 한시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서정적인 한시는 슬픔을 과하게 말하지 않으며 담담히 참상을 보여주거나 극적인 장면을 강조한다. 때로는 주변의 사물을 빌어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시인이나 독자 모두 시를 향유하는 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궁극적인 방편이 될 수 없음을 알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의 감정을 다스려 새로운 희망을 마련하는 것이 고인(故人)과 망자(亡子)에 대한 예의임을 알았기에 시를 짓고 읽었을 것이다.

장편의 서사 한시와 달리 서정적인 한시는 정제된 형식과 표현의 미감으로 슬픔을 함축한다. 감정이 지나쳐 조화를 해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야 한다는 ‘애이불상(哀而不傷)’의 태도²⁾와 과도한 감정의 분출을 이성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극기복례(克己復禮)’의 가치관에 따라 한시를 창작한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어야만 죽음을 앞두고도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 <공무도하가>의 아낙, 청나라 상인들을 따라가며 건넌마을 친구를 향해 마지막 노래를 부른 심청, 자결에 앞서 절명시를 남긴 황현(黃炫)의 마음을

2) 『論語·八佾』에 “子曰：‘<關雎>，樂而不淫，哀而不傷。”이라 하였는데 朱熹가 “傷者，哀之過而害於和者也。”라 풀이하였다.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전란의 체험과 기억을 담은 한시는 소재와 주제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①전란의 체험을 회고하며 슬픔을 표현한 것, ②전란의 희생자를 추모한 것, ③새로운 터전으로 복귀한 감회를 드러낸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³⁾

이들 세 종류의 작품은 전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처럼 전란의 참상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야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전란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희생자의 고결한 의지와 용기 있는 실천을 본받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공동체의 결속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옛 터전은 폐허가 되었어도 땅은 여전히 남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지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재건을 위한 희망의 토대가 된다. 남은 이들과 함께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희생자들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전란의 참상에 대한 회고

전란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그것은 상기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아픈 기억을 억누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더라도 과거의 비극을 환기하는 사물, 절기, 장소, 사람 등과의 만남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기에 이런 상황에서 전란을 회고하는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한편으로는 참상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대를 경계하려는 의도로 한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전란의 참상을 상기한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폐허가 된 인적과 변하지 않은 자연물을 대비한 작품일 것이다. 이런 방식은 관습적이긴 하

3) 병자호란을 소재로 삼은 작품의 경우 ①전란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한 것, ②상상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가공한 것, ③전쟁에 대한 담론(원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 전쟁에 대한 인식 양상)을 밝힌 것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가 있다. 백진우, 『전란의 기억과 문학적 극복: 정묘·병자호란 이후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문학적 현상에 주목하여』, 『동양고전연구』 제68집, 동양고전학회, 2017, 69~97면.

나 독자의 공감을 얻기에 가장 손쉬운 방식이기도 하였다.

① 에두른 성곽에 지는 해 기우는데
 곳곳의 황폐한 공터는 누구의 집이었을까?
 봄바람 부는 새로운 다리에 말을 세운 것은
 눈에 가득한 주인 잃은 꽃에 마음이 아파서라네.
 城郭周遭落日斜, 荒墟處處是誰家?
 東風立馬新橋路, 萬目傷心無主花。⁴⁾

② 석양 아래엔 시든 버들 몇 그루뿐인데
 꽃다운 풀과 들꽃이 옛길을 덮고 있네.
 한식 후에 새 소리 하나 들릴 뿐이니
 외로운 성 어디에서 새 연기를 볼 수 있을까?
 數株殘柳夕陽天, 芳草閑花覆古阡。
 啼鳥一聲寒食後, 孤城何處見新煙?⁵⁾

③ 정자와 객관이 완전히 사라져 이젠 터만 남았는데
 산과 강은 옛 나라이건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네.
 황량한 마을과 버려진 밭은 돌보는 이가 없어
 쓸쓸한 텅골에 덩그러니 매달린 오이를 새가 쪼아 먹네.
 亭館遺基今掃地, 山河舊國未還家。
 荒村廢圃無人管, 寒蔓空懸鳥啄瓜。⁶⁾

①은 정작(鄭碯, 1533~1603)이 난후에 옛집으로 돌아와 지은 시이다. 성곽은 온전하나 건물이 모두 폐허가 되어 누구 집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이 심어 놓은 것이 분명한 꽃만이 과거 이곳에 누군가 살았음을 알려줄 뿐이다. 생명을 키우는 봄바람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인적을 찾기 어

4) 洪重寅 編, 『東國詩話彙成·本朝·鄭碯』 권13: “古玉, 駱洞人也. 壬辰亂後, 還舊洞, 題一絕曰: ‘城郭周遭落日斜, 荒墟處處是誰家? 東風立馬新橋路, 萬目傷心無主花.’” 駱略을 판던 곳이어서 駱略洞 또는 駱略洞이라고 하였다.

5) 宋翼弼, <新到經亂地次人>, 『龜峯集』(한국문집총간 42) 권1, 384면. 이하 ‘한국문집총간’은 ‘총간’으로 약칭한다.

6) 李春榮, <亂後始過漢江>, 『體素集』(총간 66) 中, 393쪽.

렵고 새로 다리를 놓았어도 건너는 사람이 많지 않다. ‘傷心’이라는 주제가 바로 드러나고 성곽 너머로 지는 해, 황량한 폐허, 주인을 잃은 꽃 등 관습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

②는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이 난리를 겪은 마을에 이르러 지은 시이다. 잃어 시든 버드나무 몇 그루만이 과거 이곳에 마을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길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아 풀과 꽃만 가득하다. 한식(寒食)에는 찬밥을 먹고 불을 피우지 않다가 다음날인 청명(淸明)이 되면 다시 불을 피우는데 이를 ‘신화(新火)’ 또는 ‘신연(新烟)’이라고 한다.⁷⁾ 한식이 지났는데도 밥 짓는 연기가 보이지 않으니 떠난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버려진 마을이라는 뜻이 된다. 예와 다름없는 버들, 풀, 꽃과 연기가 끊긴 마을이 대조를 이룬다.

③은 이춘영(李春榮, 1563~1606)이 전란 후에 처음으로 한강을 건너며 지은 시이다. 여기에도 건물, 마을, 밭 등 인迹에 해당하는 것들이 산하, 오이, 새 등 자연물과 대조된다. 이들 세 작품의 시어와 의경은 인적이 끊긴 고적을 배경으로 한 회고시에도 흔히 보인다. 관습적인 표현에다 등장인물도 없어서 화자의 전란 체험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위의 세 작품은 과거의 참상을 이면에 간직한 현재의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슬픔의 정조를 함축하고 있다. 전란으로 인한 터전의 황폐함과 쓸쓸함을 강조하기 위해 별도의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았다. 이와 달리 등장인물을 통해 비극을 강화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널리 알려진 예는 다음과 같다.

난리 후에 필운대에서 봄 경치를 바라보며

황폐한 성에는 꽃을 피울 나무가 없는데
다만 봄바람에 저물녘 까마귀만 내려앉네.
고궁으로 가는 길에 모싯대가 푸른데
봄 되어 농부가 금비녀를 चु는구나.
荒城無樹可開花, 惟有東風落暮鴉。
薺萋青青故宮路, 春來耕叟得金釵。⁸⁾

7) 唐 張繼, <閨門卽事>, 『全唐詩』 권242: “試上吳門窺郡郭, 淸明幾處有新煙。”

8) 李好閔, <亂後弼雲春望>, 『五峯集』(총간 59) 권1, 326면. 『箕雅』(권4, 229면)에도 실려 있다.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은 임진왜란 때 이조좌랑으로 의주까지 어가를 호종했으며 요양(遼陽)으로 가서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 시는 1593년 한양 수복 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황폐해진 도성의 모습을 묘사한 앞부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 도성이 내려다보이는 꽃구경의 명소인 필운대에 올랐으나 난리로 나무가 불에 타버려 꽃을 찾아볼 수 없다. 꽃이 없다는 것은 잎도 없다는 뜻이어서 나무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모습이 분명하게 눈에 들어온다. 산야에서나 볼 수 있는 모싯대가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큰길에 자란다고 하였으니 도성의 변화가 모두가 폐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구에 비너를 줍는 농부가 등장하여 전환의 효과를 거둔다. ‘경수(耕叟)’는 밭을 갈러 나온 늙은이로 번역하기도 하나 도성의 큰길이 배경이므로 그냥 늙은 농부로 보는 것이 낫다. 폐허가 된 궁터에서 비너를 줍는다는 모티프는 옛 궁터를 배경으로 한 회고시에 종종 보이므로 새로운 표현이 아니지만⁹⁾ ‘제니(薺萁)’라는 생소한 시어를 선택함으로써 참신한 의경을 만들어내었다.

제니는 《동의보감》과 《훈몽자회·소채(蔬菜)》에 ‘계로기’라 되어 있는데 모싯대라고도 한다. 짙은 도라지와 비슷하고 뿌리는 사삼(沙蔘)과 비슷하여 인삼으로 둔갑하여 팔리기도 했다.¹⁰⁾ 맛이 좋아 싹을 삶아 먹거나 뿌리를 말려 먹었고¹¹⁾ 가난한 집에서는 고기를 대신하기도 하였다.¹²⁾ 배고픔에 봄나물이라도 구하려던 농부가 제니를 발견하고 땅을 파다가 비너를 찾은 것으로 보면 화려한 궁궐의 삶과 가난한 백성의 삶이 모조리 절망에 처한 상황을 노래한 것이 된다.

전란의 참상에 대한 관습적인 표현의 또 다른 양상은 옛 시구를 용사하

- 9) 唐 曹鄴, <姑蘇臺>, 『全唐詩』 권593: “時聞野田中, 拾得黃金釵。”; 明 張紳, <送友賦得玉鈎斜> 在揚州, 煬帝葬宮人處, 『古今圖書集成·方輿彙編·坤輿典』 권137: “耕夫拾得鳳凰釵, 恐是蕭娘在時物。”
- 10) 明 李時珍, 『本草綱目·草一·薺萁』: “薺萁, 苗似桔梗, 根似沙蔘. 故奸商往往以沙蔘、薺萁通亂人參.”
- 11) 許浚, 『東醫寶鑑·湯液篇·菜部·薺萁』 권2: “處處有之, 生山中. 今人採收以爲果菜. 取苗煮食, 採根作脯, 味甚美.”
- 12) 丁若鏞, <六月無花, 唯木樞擲場, 使人感念, 率爾有作, 遂次東坡定惠院海棠韻, 奉示澗翁>, 『與猶堂全書·第一集·詩文集·松坡酬酢』(총간 281), 110면: “豪筵綺羅不稱絃, 飢戶薺萁可當肉.”

거나 점화하는 것이다. 전란의 체험을 가장 적절하게 시화(詩化)한 시인으로 두보(杜甫)를 손꼽는다. 그래서 두보의 시를 활용하여 임란의 체험과 기억을 담아낸 경우가 많다. 허균의 <노객부원>과 이안눌의 <사월십오일>은 관찰자인 시인이 참상을 경험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한다는 설정을 보이는데 이는 두보의 <석호리(石壕吏)>와 유사하다. 피난 중 유언 대신 두보의 시를 적어놓고 투신한 박지화(朴枝華)의 경우는 절망의 심정을 두보의 시로 대변한 극단적인 예가 된다.¹³⁾ 이밖에 두보의 시구를 점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거나 의경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난리 후에 친구의 시를 차운하여 죽석에서 읊다

고국의 변화함이 일찌감치 눈앞을 지나가니
 돌아왔어도 흐트러진 머리를 누일 곳이 없구나.
 놀라거나 피 토하는 건 꽃과 새 때문이 아닌데
 어딜 가나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지 묻는구나.
 故國繁華過眼曾，歸來無地着鬢髻。
 驚心濺血非花鳥，到處人言避地能。¹⁴⁾

윤두수(尹斗壽, 1533~1601)는 임란 때 어영대장과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명으로 망명하려는 선조를 설득하였고 평양성 방어에 참여하였다. 이 시는 유린당한 국토를 마주한 절망감을 담아낸 것인데 두보의 <춘망(春望)>을 의경 구성의 바탕으로 삼았다. 기구는 “나라는 망했어도 산과 강은 남아 있고 성은 봄이라 풀과 나무가 무성하다(國破山河在，城春草木深)”를 활용하였다. 조선 개국 후 2백 년의 변화했던 시절이 눈앞을 스치듯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뜻이다.

승구의 ‘봉숭(鬢髻)’은 흐트러진 머리인데 머리를 매만질 시간조차 없이 전란 극복에 바쁜 시절을 보냈다는 뜻이다. 산발이 된 머리를 누일 곳이 모

13) 鄭弘溟, <漫述>, 『畸庵集·續錄』(총간 87) 권12, 196: “朴守菴枝華, 出於寒微, 能自讀書莊修, 一時多所稱譽. 壬辰倭變, 避亂山谷間. 一日, 家人不知其處, 跟至一泓下, 見其衣履蛻脫在水邊, 得其浮屍而歸. 衣帶間, 見有老杜一律, 卽京洛雲山外, 音書靜不來. 白鬪元水宿, 何事有餘哀全篇也. 豈亦懷沙之遺意歟!”

14) 尹斗壽, <亂後卽事, 次友人韻>(3수 중 2수), 『梧陰遺稿』(총간 41) 권2, 531면.

조리 사라져버렸다는 의경은 <춘망>의 “흰 머리는 굵을수록 더욱 짧아져 비너를 낚지 못할 정도라네(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를 연상시킨다. 전구는 <춘망>의 “시절이 느껴워 꽃에도 눈물 흘뿌리고 이별이 한스러워 새한테도 마음이 놀란다(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¹⁵⁾를 가져다 쓴 것이다.¹⁶⁾ ‘언(言)’은 의논하거나 묻는다는 뜻이므로 사람들이 전란을 피할 만한지 아닌지를 새 터전의 첫째 조건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부사어인 ‘증(曾)’과 ‘능(能)’을 운자로 써서 과거의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강조하였다.

두보는 전란의 체험을 사실대로 서술하였을 뿐 아니라 은미(隱微)한 방식으로 전란의 참상을 고발하였기에 ‘시사(詩史)’라는 평가를 받았다.¹⁷⁾ 따라서 후대인이 전란의 경험을 시화할 경우 두보 시를 뛰어넘는 의경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유명한 두보의 시구를 인용하거나 아예 제목을 언급하여 묘사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양근의 야미곡은 임진년에 피란했던 곳이다. 태징의 장례 때문에 옛 자취를 지나다가 느낌이 일어나 짓다

예전에 난리 피해 여기에 왔었는데
 세월이 오래도 흘렀음을 알겠구나.
 길은 하늘 북판에서 드리워졌고
 사람들은 굴속에서 살았지.
 대낮에도 산 귀신이 울고
 숲이 깊어 나무 정령이 속삭이네.
 당시 겪었던 팽아의 일
 하나하나가 몰래 마음 아프게 하네.
 避地昔來此, 星霜知幾更.

15) 杜甫, <春望>, 『全唐詩』 권224: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16) 宋 司馬光, 『溫公續詩話』: “花鳥, 平時可娛之物, 見之而泣, 聞之而悲, 則時可知矣.”; 宋 朱熹, 『朱子語類』 권73: “花鳥, 好娛戲底物, 這時却發人不好底意思, 是因好物而困也.”

17) 唐 孟榮, 『本事詩·高逸』: “杜所贈二十韻, 備敘其事, 讀其文, 盡得其故跡. 杜逢嶽山之難, 流離蜀, 畢陳於詩. 推見至隱, 殆無遺事, 故當時號爲詩史.”

路從天下, 人在窟中行.
 白晝啼山鬼, 深林語樹精.
 彭衙當日事, 一一暗傷情.¹⁸⁾

신흠(申欽, 1566~1628)은 병조좌랑에서 파직되었다가 임란이 일어난 뒤 양재도 찰방에 서용(敍用)되었다. 순변사 신립(申唼)을 따르다가 신립이 패한 뒤 행재소로 가는 길이 막혀 양근(楊根)을 거쳐 홍천(洪川)으로 갔다. 이 시는 처남의 장례 때문에 1607년 옛 피난지¹⁹⁾를 지나다가 당시의 고난을 회고하며 지은 것이다.

당시 신흠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험한 곳에서 피신했던 모양이다. 두보의 시에 “얹아누우니 산 귀신이 있음을 알겠다”²⁰⁾라 하였듯이 대낮에도 산 귀신이 출몰한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과 허약해진 몸을 가리키기도 한다. 나무가 소곤거리는 깊은 숲은 나무꾼도 이르지 않는 외진 곳이다. 왜적이 닿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 이토록 궁벽한 땅에 이르렀을 것이다.

신흠은 기억만으로도 그때의 아픔이 되살아난다고 하였을 뿐 당시의 고초를 일일이 서술하지 않았다. 그저 두보가 겪은 팽아(彭衙)의 일과 같다고만 적었다. 팽아는 섬서성 백수현(白水縣)의 동북쪽에 있는 팽아보(彭衙堡)를 가리킨다. 756년 동관(潼關)이 함락되자 두보는 가족을 이끌고 백수(白水)에서 부주(鄜州)로 피난하였다. 도중에 갖은 고초를 겪다가 팽아의 북쪽에서 친구인 손재(孫宰)에게 잠시 신세를 졌다. 이듬해 두보는 부모를 버려 봉상(鳳翔)에서 부주(鄜州)로 돌아왔는데 팽아의 서쪽을 지나느라 손재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자 그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팽아행(彭衙行)>을 지었다.

<팽아행>에 따르면 두보의 가족은 맨발로 피난하였고 만나는 이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모두 박대를 당했다. 호랑이가 나타날까 두려워 배고파 우

18) 申欽, <楊根耶美谷, 乃壬辰避亂地. 以台徵葬事, 來經舊迹, 感而有作>(2수 중 1수), 『象村稿』(총간 71) 권10, 389면.

19) ‘台徵’은 신흠의 처남인 李壽俊(1559~1607)의 자이다. 이수준은 본관이 全義, 호가 龍溪이고 병마절도사를 지낸 李濟臣의 아들이다. 1606년 冬至使 겸 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오다가 병을 얻어 이듬해 황해도 봉산군의 鳳山館에서 졸하였다. ‘야미곡’은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야미실이다.

20) 唐 杜甫, <奉酬薛十二丈判官見贈>, 『全唐詩』 권22: “臥病識山鬼, 爲農知地形.”

는 어린 딸의 입을 틀어막았으나 딸은 더욱 크게 울었다. 굶주린 막내는 먹을 수 없는 뚝은 자두라도 따달라고 보챘다. 천등과 번개에 비까지 내려 진흙 길을 가야 했고 비옷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기에 옷이 다 젖어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고작 몇 리밖에 가지 못했다. 열매를 따서 배를 채우고 나뭇가지를 지붕 삼아 밤을 지새웠다.²¹⁾

용사와 점화 외에 두보 시에 번안의 수법을 가미하여 임란의 참상을 회고한 경우도 있다. 임란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경복궁의 소실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소재로 삼은 다음 시에 두보 시를 번안한 표현 방식이 나타난다.

난리 후에 경복궁을 지나며 느낌을 기록하다

부들 짝 하얘지고 버들잎 나뉘는데
태액지의 누대는 석양을 띠었구나.
도리어 부럽구나, 옛날 두릉의 노인은
강가에서 모든 문이 단혔음을 보았을 뿐이니.
蒲芽初白柳眉分, 太液池臺帶夕曛。
却羨當年杜陵老, 江頭猶見鎖千門。²²⁾

김명원(金命元, 1534~1602)은 임진왜란 때 팔도도원수로서 한강과 임진강을 방어했고 정유재란 때는 병조판서를 지냈다. 이 시는 1593년 한양을 수복한 뒤 경복궁을 지나며 지은 것인데²³⁾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慶會樓)와 경회지(慶會池)를 읊은 것으로 보인다.

21) 唐 杜甫, <彭衙行>, 『全唐詩』 권217: “憶昔避賊初, 北走經險艱。夜深彭衙道, 月照白水山。盡室久徒步, 逢人多厚顏。參差谷鳥吟, 不見遊子還。癡女饑咬我, 啼畏虎狼聞。懷中掩其口, 反側聲愈嘖。小兒強解事, 故索苦李餐。一句半雷雨, 泥濘相牽攀。既無禦雨備, 徑滑衣又寒。有時經契闊, 竟日數里間。野果充糲糧, 卑枝成屋椽。早行石上水, 暮宿天邊煙。少留回家窪, 欲出蘆子關。故人有孫室, 高義薄曾雲。延客已曠黑, 張燈啓重門。煖湯濯我足, 剪紙招我魂。從此出妻孥, 相視涕闌干。衆雛爛爛睡, 喚起露盤飧。誓將與夫子, 永結爲弟昆。遂空所坐堂, 安居奉我歡。誰肯艱難際, 豁達露心肝! 別來歲月周, 胡羯仍構患。何時有翅翎, 飛去墮爾前?”

22) 金命元, <亂後過景福宮志感>, 『箕雅』 권3, 『大東詩選』(권3)에도 수록되어 있다.

23) 李肯翊, 『燃藜室記述·宣祖朝故事本末·求教明朝收復京城』 권16: “兩湖體察鄭澈, 京畿、江原體察俞泓, 入京城收掃, 陵寢焚蕩之餘, 平時舊物, 一無所存, 極目丘墟。金命元歷景福宮基址, 詩曰: ‘蒲芽初白柳眉分, 太液池臺帶夕曛。却羨當年杜陵老, 江頭惟見鎖千門。’”

난리를 겪었어도 부들과 버들은 예년과 다를 바 없다. 부들의 싹이 희다고 했으니 단맛이 나는 향포(香蒲)인 모양이다.²⁴⁾ 좌우로 잎이 나뉜다는 표현은 버들잎이 자라는 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태액지(太液池)는 한나라 건장궁(建章宮)의 서북쪽에 있던 연못으로 소제(昭帝)와 조비연(趙飛燕)이 बैठ는 곳이다. 당나라 장안의 대명궁(大明宮) 북쪽에 있던 연못도 태액지라 하였는데 현종과 양귀비가 연꽃을 구경한 곳이다.²⁵⁾ 궁궐의 연못이라는 공통점에다 경회지를 옥액(玉液)이라고도 불렀으므로²⁶⁾ 태액지라는 시어를 선택한 것이다.

경회지는 소나무, 연꽃, 버들이 아름답게 우거진 곳으로 경회루를 읊은 시에는 버들이 자주 보이지만²⁷⁾ 부들을 묘사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에서 부들과 버들을 함께 언급한 것은 두보의 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757년 반란으로 장안이 함락되었을 때 두보는 “강가의 궁전은 모든 문이 잠겼는데 가는 버들과 새로운 부들은 누굴 위해 푸른가(江頭宮殿鎖千門, 細柳新蒲爲誰綠)”라 읊었다.²⁸⁾ 두보의 시는 황하의 물이 굽이 흐르는 곡강(曲江)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²⁹⁾ “창포는 이파리를 뒤집고 버들은 가지

24) 李晔光, 『芝峯類說·卉木部·草』 권20: “凡蒲有三種, 一水草, 可作席; 一蒲柳, 可作箭幹; 一昌蒲, 藥名. 按『本草』, 香蒲, 卽黃苗也. 亦曰甘蒲, 春初生嫩茸, 啖之甘脆大美, 可爲鮓, 或爲菹”; 明 李時珍, 『本草綱目·草之八·香蒲』: “恭曰: 香蒲, 卽甘蒲, 可作薦者. 春初生, 取白爲菹, 亦堪蒸食. 山人人謂之香蒲, 以菖蒲爲臭蒲也. 蒲黃, 卽此蒲之花也(…) 頌曰: 香蒲, 蒲黃苗也. 處處有之, 以秦州者爲良. 春初生嫩葉, 未出水時, 紅白色茸茸然. 取其中心入地白蕊, 大如匕柄者, 生啖之, 甘脆. 又以醃浸, 如食筍, 大美.”

25) 五代 王仁裕, 『開元天寶遺事·解語花』 卷下: “明皇秋八月, 太液池, 有千葉白蓮, 數枝盛開. 帝與貴戚宴賞, 左右皆歎美久之. 帝指貴妃示左右曰: ‘爭如我解語花?’”

26) 魚叔權, 『稗官雜記』 권4: “龔太史用卿, 吳黃門希孟, 皆風流文雅, 覽本國山川之秀, 不覺發興, 至於下轡吟賞. 凡所歷川嶺池亭, 輒名之, 或易其舊號, 仍寫額以揭之(…) 慶會樓下之池, 曰環碧, 曰玉液, 西之小渚, 曰雙洲; 改白岳曰拱極, 仁王曰彌雲.”

27) 李媞, <慶會樓歌>, 『續東文選』 권5: “御溝前頭草蒙茸, 青林綠樹搖香風. 千株楊柳煙濛濛, 百面池水含芙蓉.”

28) 唐 杜甫, <哀江頭>, 『全唐詩』 권216: “少陵野老吞聲哭, 春日潛行曲江曲. 江頭宮殿鎖千門, 細柳新蒲爲誰綠? 憶昔霓旌下南苑, 苑中萬物生顏色. 昭陽殿裏第一人, 同輦隨君侍君側. 輦前才人帶弓箭, 白馬嚼齧黃金勒. 翻身向天仰射雲, 一笑正墜雙飛翼. 明眸皓齒今何在? 血汗遊魂歸不得. 清渭東流劍閣深, 去住彼此無消息. 人生有情淚沾臆, 江水江花豈終極! 黃昏胡騎塵滿城, 欲往城南望城北.”

29) 曲江은 秦의 宜春苑, 漢의 樂遊原이 있던 곳으로 唐 皇室의 園林이기도 하였다. 曲江池, 大雁塔, 芙蓉園, 寒窯, 秦二世陵 등이 있는데 玄宗이 역대 규모로 확장하여 紫雲樓, 彩霞亭, 臨水亭, 水殿, 山樓, 蓬萊山, 涼堂 등을 지었고 大明宮과 興慶宮에서 바로 芙蓉園에 이를 수 있

를 교차하네(菖蒲翻葉柳交枝)”³⁰라 하였듯이 봄철의 곡강은 아름다운 버들과 부들로 유명하였기에 두보 또한 ‘신포세류(新蒲細柳)’라 읊은 것이다.

당나라 때 진사시의 합격 방문이 붙으면 크게 곡강연(曲江筵)을 베풀었듯이 경회루에서도 사신을 영접하고 신료를 위로하는 잔치를 벌였다. 1593년 6월에 성훈(成渾)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길가에 백골과 시체가 버려져 있었고 도성의 집들이 모두 불타버렸다고 한다. 경복궁 또한 전소되어 경회루의 돌기둥만 남았다고 한다.³¹ 두보 때의 대명궁보다 더 심한 참화를 입은 것이므로 이 시는 두보의 시를 번안한 것이 된다.

경복궁의 소실과 함께 임란의 참상을 대표하는 사건이 곧 이릉(二陵)의 훼손이다. 이 사건은 조선 전역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는데 이에 따라 이를 소재로 삼은 시편도 다수 창작되었다.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것은 다음과 같다.

이릉을 지날 때 느낌이 있어서

일찍이 삼한을 다스려 한 집안으로 만들었는데
백 년 만의 재난에 원한이 끝없어라.
외로운 신하가 말 타고 능의 앞길 지나는데
눈물에 젖었는지 사철나무에 꽃이 가득하네.
會把三韓作一家, 百年灰劫恨無涯。
孤臣匹馬陵前路, 淚濕冬青滿樹花。³²

이릉(二陵)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의 묘

도록 긴 夾城을 쌓았다.

- 30) 唐 盧綸, <曲江春望>, 『全唐詩』 권279: “菖蒲翻葉柳交枝, 暗上蓮舟鳥不知. 更到無花最深處, 玉樓金殿影參差.”
- 31) 成渾, <雜記>, 『牛溪集·雜著』(총간 43) 권6, 163면: “二日, 自松山入京. 到鍾巖, 見白骨在道傍甚多, 目不忍視. 至普濟院前, 見僵屍在道中, 入東大門至鍾樓, 凡有四五處. 松山至門外, 昇屍而行者甚多. 城中百萬家皆殘廢, 只有堆垣敗瓦. 遺民之未死者無幾, 皆壘瓦爲牆壁, 取火餘之木, 架爲巢穴. 鍾樓前有市, 相聚者數百人. 至闕門則宮殿無有存者, 但見慶會樓石柱而已. 草生大道, 行人僅有往來者, 頻聞哭聲. 遇人, 面無人色, 慘然無生意. 人之行步皆徐行, 蓋以長飢故也. 嗚呼, 痛哉!”
- 32) 權鐸, <過二陵有感>, 『石洲集』(총간 75) 권7, 74면. 『箕雅』(권4)와 『大東詩選』(권3)에도 수록되어 있다.

인 선릉(宣陵)과 중종의 묘인 정릉(靖陵)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임란 때 일본군에 의해 도굴을 당했는데 시신이 훼손되어 버려졌다고 하며 이후로 능 주변에 송백(松栢)이 자라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 일본이 사과의 뜻으로 범인을 사로잡아 보냈으나 이를 진짜라고 믿는 이는 없었다.³³⁾

신라가 삼한을 통일한 이후 북방의 외적이 여러 차례 국토를 짓밟았으나 국왕의 묘를 파헤친 적은 없었다. 지난 천 년간 이른바 ‘되놈’이라 멸시되었던 북방의 오랑캐들조차 이러한 무례를 범하지 않았는데 사후 백 년도 되지 않아 성종(1457~1494)의 시신이 훼손된 것이다.

‘회겁(灰劫)’은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려 검은 재만 남는 재앙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이다.³⁴⁾ ‘동청(冬靑)’은 상록수인 사철나무를 가리킨다. 원나라 때 강남(江南)의 총관(總管)이 송나라 황실의 능침을 도굴하여 시신을 유기하였다. 이에 회계(會稽) 사람인 당각(唐珏)이 제왕의 유골을 목갑(木匣)에 모으고 능호를 표시한 다음 다른 곳에 묻었다. 그리고 상조전(常朝殿)에 있던 사철나무를 옮겨 심은 뒤 <동청행(冬靑行)>이란 시를 지어 애도하였다.³⁵⁾ 사철나무는 6~7월에 자갈한 크기의 연녹색 꽃을 피우는데 권필은

33) 李瀛, 『星湖僿說·人事門·宣靖陵』 권9: “壬辰兩陵之變, 難忘之讐. 玉體眞僞, 至今傳爲不明之案. 倭旣發掘, 更求遠地死屍置之壙內, 亦似無理. 掘之非爲私仇, 欲得貨寶, 必藏眞而眩假, 抑何故哉已矣? 言之無益. 後日本執送犯陵賊二人, 其一人年少, 斷非壬辰之賊. 其必以死囚瞞我也. 彼之死囚而行刑於我, 其差辱益甚! 余謂宜與倭人並坐鞫訊, 服則誅, 不服則還付本國, 可也. 顧當時慮不及此耳.”

34) 우주의 생멸 과정인 成·住·壞·空의 四劫 가운데 우주가 괴멸하는 壞劫의 시기에 火·水·風의 大三災가 차례로 일어난다. 火劫으로 생긴 재난을 灰劫이라 하며 兵火로 불타버린 잔재를 가리킨다. 『搜神記』 권13: “漢武帝鑿昆明池, 極深, 悉是灰墨, 無復土. 舉朝不解, 以問東方朔, 朔曰: ‘臣愚不足以知之.’ 曰: ‘試問西域人.’ 帝以朔不知, 難以移問. 至後漢明帝時, 西域道人入來洛陽, 時有憶方朔言者, 乃試以武帝時灰墨問之. 道人云: ‘經云: ‘天地大劫將盡, 則劫燒.’ 此劫燒之餘也.’ 乃知朔言有旨.”

35) 明 陶宗儀, 『南村輟耕錄·發宋陵寢』 권4: “唐君名珏, 字玉潛, 會稽山陰人. 家貧, 聚徒授經, 營澆瀆以養其母. 歲戊寅, 有總江南浮屠者楊璉真珣, 怙恩橫肆, 執焰燦人, 窮驕極姪, 不可具狀. 十二月十有二日, 帥徒役頓蕭山, 發趙氏諸陵寢, 至斷殘支體, 攫珠襦玉匣, 焚其齒, 棄骨草莽間. 唐時年三十二歲, 聞之, 痛憤, 亟貨家具, 得白金百星許. 執券行貸, 得白金又百星許. 乃具酒醪, 市羊豕, 邀里中少年若干輩, 狎坐轟飲. 酒且酣, 少年起請曰: ‘君, 儒者, 若是, 將何爲焉?’ 唐慘然具以告: ‘願收遺骸坎瘞之.’ 衆謝曰: ‘諾.’ 中一少年曰: ‘發丘中郎將耽耽餓虎, 事露奈何?’ 唐曰: ‘余固壽矣. 今四郊多暴骨, 取寶以易, 誰復知之?’ 乃斫文木爲匣, 復黃絹爲囊, 各署其表, 曰某陵某陵, 分委而散遣之. 絕地以藏, 爲文而告. 詰旦, 事訖, 來集. 出白金羨餘酬, 戒勿泄(…) 唐葬骨後, 又於宋常朝殿掘冬靑樹, 植於所函土堆上, 作<冬靑行>二首曰: ‘馬鬣問髒形, 南面欲起語. 野鬻尙屯東, 何物敢盜取? 餘花拾飄蕩, 白日哀后土. 六合忽怪事, 蛟龍掛茅宇. 老天鑑區區, 千

이를 마치 나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인 양 묘사하였다.

송나라 제왕의 시신과 달리 성종과 중종의 시신은 되찾을 수가 없었다. 이릉의 만행을 용서하거나 묵과할 수 없었던 이들은 일본과의 화해를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일본의 평화 협정 요구에 회답하러 떠나는 사신에게 이릉의 원한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한 윤안성(尹安性, 1542~1615)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윤안성은 임란 때 남원부사로서 난민이 관창(官倉)을 부수고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자, 단신으로 말을 달려 수십 명을 죽여 난을 진압하였다. 순검사 김명원의 종사관이 되어 용인을 지키다가 밤중에 순검사 등이 도망치자 곧장 남원으로 돌아와 흩어진 군졸을 수습하였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윤안성의 입장에서는 왜적과 화해하려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한강에 서서 이릉의 소나무와 잣나무에 가지가 자라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³⁶⁾고 외쳤던 것이다.

전란의 대비와 대응은 물론이고 수습 과정에서도 혼란을 보인 조정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란의 주원인은 일본군이라는 외부 세력이었으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내부의 폐단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전란이 닥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였다.

속마음을 쓰다

오랑캐 섬으로 비로소 배가 돌아갔으나
북쪽 오랑캐 군막에서 화살촉이 울려 하네.
내 백 년의 절반 사는 동안
조정 의론이 언제 화평했던가?
연못 감감하여 여의주도 어둡고
수풀 어둑하여 귀신불만 밝네.

載護風雨.’ 又曰: ‘冬青花, 不可折, 南風吹涼積香雪. 搖搖翠蓋萬年枝, 上有風巢下龍穴. 君不見, 犬之年羊之月, 劈歷一聲天地裂.’”

36) 尹安性, <送日本回答使>, 『大東詩選』 권3: “使名回答向何之? 此日交隣我不知. 試到漢江江上望, 二陵松柏不生枝.”

강산은 부질없이 예와 같은데
 백제의 왕성에서 눈물 떨구네.
 夷島飄初返, 戎廬鏑欲鳴.
 吾生百年半, 朝論幾時平?
 潭黑龍珠晦, 林昏鬼火明.
 江山空自古, 淚落濟王城³⁷⁾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은 임란 때 광해군을 따라 전국을 돌아다녔고 명군을 응접하는 동시에 삼도순안어사(三道巡按御史)로서 삼남(三南) 지방을 순무하였다. 이 시는 1602년(선조 35) 부여의 백마강 가에 집을 짓고 우거할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왜적은 물러갔지만 북방에 또다시 전란의 기운이 감돈다. 그런데도 간신들은 이익을 위해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 연못이 검어 여의주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배를 비판한 것³⁸⁾이지만 백제를 언급한 것을 보면 군주의 몽매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백성들의 원혼이 도깨비불³⁹⁾로 떠도는 비극을 잇는다면 백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왕성의 자취는 사라지고 부소산과 백마강만 남은 상황을 언급한 데서 현실에 대한 감개와 비판을 읽을 수 있다.

III. 전사자와 희생자에 대한 추모

앞서 살펴본 작품들은 접물에 의한 순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시화(詩化)하였다는 공통점을 보이는데 이와는 달리 전란의 체험과 참상을 회고하여

37) 柳夢寅, <寫懷>, 『於于集·湖西錄』(총간 63) 권1, 303면.

38) 白居易의 시에 제수를 갖추어 용에게 기원을 올리지만 결국 숲속의 여우가 제수를 가로채고 용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배를 비판한 것이다. 唐 白居易, <黑潭龍 疾貪吏也>, 『全唐詩』 권427: “黑潭水深黑如墨, 傳有神龍人不識. 潭上架屋官立祠, 龍不能神人神之. 豐凶水旱與疾疫, 鄉里皆言龍所爲. 家家養豚澆清酒, 朝祈暮賽依巫口. 神之來兮風飄飄, 紙錢動兮錦傘搖. 神之去兮風亦靜, 香火滅兮杯盤冷. 肉堆潭岸石, 酒潑廟前草. 不知龍神享幾多, 林鼠山狐長醉飽. 狐何幸, 豚何辜, 年年殺豚將喂狐? 狐假龍神食豚盡, 九重泉底龍知無.”

39) 唐 曹松, <古塚>, 『全唐詩』 권716: “唯應風雨夕, 鬼火出林明.”

자세하게 서술한 작품도 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임란 극복에 힘쓴 정탁(鄭琢, 1526~1605)은 임란의 체험을 기록한 시편을 다수 창작하였는데⁴⁰⁾ 1605년에 지은 <난리 후에 그간의 일을 기록하다(亂後紀行)>는 임란의 경과와 자신의 체험을 시간순으로 서술한 작품이다.⁴¹⁾ 작품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나라 만력 기원 임진년 여름 사월에
 군대의 급보에 깜짝 놀라니 왜의 배가 바다를 뒤덮으며 건너온다네.
 열흘 만에 이미 조령을 넘어 천 리 떨어진 서울의 대궐까지 들이닥쳤네.
 결국 스무여드렛날 한밤중에 가마를 타고⁴²⁾ (한양을) 떠났네.
 신하들도 절반이나 뒤따르지 못했는데 하물며 호위하는 군졸을 갖출 수 있었
 겠는가?

이때 나는 내의원 부제조였는데 보파리 꾸린 것은 다만 약재뿐이었지.
 호종하여 서쪽 성문을 나오는데 가슴속에는 울분만 가득했지.
 하느님은 또한 무슨 일인가? 큰비가 목욕물처럼 퍼부었지.
 내 살면서 이런 때를 만났으니 주군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 하네.
 아침 늦게 벽제관에 도착하였는데 넘어지고 자빠지며 진흙탕을 지나왔네.
 임금께 수라도 바치지 못하여 서로 쳐다보며 아파하고 슬퍼만 했네.
 퍼붓는 비바람에 물결이 거세니 하백 또한 일을 어렵게 만들었지.

皇明紀萬曆，壬辰夏四月。忽驚羽書急，倭艘蔽海越。
 一旬已踰嶺，千里逼京闕。遂於念八日，中夜乘輿發。
 臣僚半未從，何況備衛卒？我時提內醫，所裹唯藥物。
 扈出西城門，中情徒憤鬱。天公又何事？大雨如注沐。
 我生丁此辰，臣當死主辱。朝晚到碧蹄，顛仆經泥滑。
 至尊猶未供，相視但慘怛。滂沱風浪湧，河伯亦造惡。

40) 김원준, 『임란기 약포 시에 나타난 시적 형상화와 그 특징』, 『어문논총』 제72호, 한국문학 언어학회, 2017, 159~189면; 최고경, 『藥圃 鄭琢의 전쟁 시를 통한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 분석』, 『군사』 제11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229~254면.

41) 鄭琢, <亂後紀行>, 『藥圃集』(충간 39) 권1, 432면: “余草草亂後行跡矣。歲己亥，受命歸省松楸，仍病未還朝。癸卯，以衰病致仕。頃於沈綿中閱文籍得草記，因續告老後事，遂成顛末，余時年八十也。爰命兒子允穆，修正寫出如右。青蛇仲夏上浣，藥圃病夫題于襄陽高子坪之望湖堂。”

42) 宋 司馬光, 『資治通鑑·漢獻帝建安二十四年』: “乘輿播越，宗廟丘墟，王室蕩覆，烝民塗炭。”

1592년 4월 13일 바다를 건넌 왜적은 사흘 만에 부산과 동래를 점령하였고 4월 24일 상주에서 이일(李鎰)의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경상도를 함락하였다. 4월 28일에는 신립의 군대가 충주 탄금대에서 패퇴하면서 경기와 서울의 방어선이 무너졌고 결국 5월 2일 한양이 점령되었다.

전세가 기울자 선조는 한밤중에 몰래 경복궁을 빠져나왔다. 당시 정탁은 약방(藥房)에 입시하고 있었기에 어가를 호종하였는데 겨우 비상약만 챙길 수 있었다.⁴³⁾ 신료와 호위병조차 도망칠 정도였으니 백성을 버린 임금과 조정에 대한 신망은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밤새 비를 맞고 진흙 길에 넘어지며 겨우 벽제관에 도착했으나 임금의 아침밥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라상을 준비할 사람이 모두 도망쳤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는 방어책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장면과 유극량(劉克良)의 계책을 쓰지 않아 삼군이 패배한 일, 의주로 피난한 일, 방어의 책임을 맡게 된 광해군을 따르며 고생한 일, 명군의 참전과 승리 등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성일, 고경명, 조헌, 광재우, 권율, 이순신 등 국난 극복에 큰 공을 세운 이들을 열거하며 추모의 마음을 드러내었다.⁴⁴⁾

조선군은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대, 조총 등의 최신식 무기, 오랜 실전 경험 등을 고루 갖춘 일본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개전 19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말았다. 이런 상황을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명군의 원조, 관군의 재조직, 의병의 활동 등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정탁처럼 책무를 다한 이들과 목숨을 바쳐 참전한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승리의 밑바탕이 되었다.

광재우와 권율은 정유재란 이후에도 생존하였으나 고경명과 조헌은 1592년 금산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김성일은 1593년 진주성 전투에서 병사하였다. 이순신 또한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였다.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후인들이 시를 지은 것은 당연한 도리라 할 수 있다. 전란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희생의 소식을 전해 듣거나 희생의 장소를 지나면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이런 작품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해수(李海壽, 1536~1599)

43) 原註에 “以內醫院副提調, 入侍藥房, 扈駕.”라고 하였다.

44) 鄭琢, <亂後紀行>, 『藥圃集』(총간 39) 권1, 432면: “吾儕金士純 誠一, 最是多方力. 堂堂儒將氣, 凜凜爭秋色. 草檄高而順 敬命, 忠骨飄溝壑. 死節趙大夫 憲, 糾合多斬賊. 沈機郭男兒 再社, 義旌何輝赫! 幸州快獻捷, 奇功屬權慄. 闔帥李舜臣, 賊帆大摧折.”

의 <난후도망록(亂後悼亡錄)>이다. 임란 발발 당시 이해수는 세자 건저 문체에 연루되어 종성(鍾城)에 유배 중이었는데 해배(解配) 직후 의주의 행재소로 달려갔다. 이후 서용되어 대사간, 대사성 등을 지내며 전란 극복에 노력하였다.

<난후도망록>은 조헌, 김천일, 고경명, 송상현 등의 전사자뿐 아니라 난리 중에 병이나 기아로 죽은 친지, 왜적에게 붙잡히자 순절한 이들을 추모한 50수의 연작시이다. 이 가운데 막내 조카인 이려(李勵)를 추모한 시가 눈에 띈다. 이려는 스물여섯의 나이로 전사하였는데 이해수는 “씩을 띄우고도 이삭을 맺지 못했으니 매우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다음과 같이 조카의 넋을 기렸다.

나이 스물을 넘기자 일찍부터 방향을 알았는데
 책 보따리 메고 스승 따르며 스스로 강해지는 것에 뜻을 두었지.
 어려움 만나자 몸을 잊고 무엇을 선택할지 알았으니
 아침에 (도를) 들고 저녁에 죽은 것을 어찌 아파하랴?
 年踰弱冠早知方，負笈從師志自強。
 臨難忘身能取舍，朝聞夕死復何傷？⁴⁵⁾

이려는 이해수의 동생인 이회수(李淮壽)의 아들로서 임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모집하는 조헌(趙憲)의 휘하로 달려갔다. 처음에 식구들이 본분도 아니니고 늙으신 부모에 식구들도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충절은 우리 집안의 일”이라는 말과 함께 의병으로 종군하였다. 청주 전투에서 왜적을 섬멸하는 공을 세웠으나 결국 중과부적의 금산 전투에서 순국하고 말았다.⁴⁶⁾

이해수는 조카의 큰 뜻을 기리고자 유가 경전의 말로 의경을 구성하였

45) 李海壽, <季姪勵年廿六，從義兵將趙汝式，戰死于錦山。苗而不秀，余甚惜之>，『藥圃遺藁·亂後悼亡錄』(총간 46) 권3, 53면.

46) 成海應, <錦山殉節諸臣傳>, 『研經齋全集·蘭室史料三』(총간 275) 권60, 239면: “李勵，字得之，全義人，貞肅公鏗孫也。爲人卓犖魁梧，孝友有氣節。每論古今人物，慷慨激揚，有感動人者。嘗誤罽毼汝立之獄，被逮關三木趨程，而道遇忠孝棹楔，必下馬敬之。壬辰之亂，文烈公趙憲募義士，勵往從之。家屬止之曰：‘非有職事，其於老親與十口何？’勵笑曰：‘忠節固吾家事也。’憲見勵至大喜，常置幕下。既敗清州賊，移向錦山，而以師寡而饋，遂與文烈公同死，時年二十六。”

다.⁴⁷⁾ ‘지방(知方)’은 의리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안다는 뜻으로 자로(子路)가 한 말이다.⁴⁸⁾ 『논어』에는 성급하고 경솔한 자로의 성격을 드러내는 맥락으로 나오지만 배운 바를 실천하려 한 자로의 의지가 잘 나타나기도 한다.

전구는 보통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이려의 의기와 실천을 칭송한 구절이다. 부모가 계시는데도 제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 어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려는 자신을 희생하여 어둠을 실천한 지사(志士)이다.⁴⁹⁾ 죽을 것이 뻔한데도 전쟁터로 달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나 이려는 구차하게 어려움을 모면하려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다.⁵⁰⁾

결구에서는 이려의 죽음을 공자의 말⁵¹⁾을 실천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아랫사람의 죽음을 극도로 공경한 것이니 제자인 자로의 죽음을 통곡하고 성대한 장례를 치른 공자의 마음과 비슷하다. 공자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한 안희의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라고 했으나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로의 장례는 매우 성대하게 치르게 했다. 공사를 구분하여 적절한 예를 갖춘 것이다. 이해수 또한 조카를 혈육보다는 인인(仁人)과 지사(志士)로 인정하였기에 그 죽음을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통해 오히려 이 시의 주제가 ‘상(傷)’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해수는 1594년에 구사맹(具思孟, 1531~1604)에게 <난후도망록>을 보이고 차운을 요청하였다. 구사맹도 이해수처럼 국난 극복에 헌신한 관료였다. 한성부우윤 겸 동지의금부사로서 평양의 행계소까지 선조를 호종하였고 중전과 왕자의 안위를 책임지기도 하였다. 구사맹은 이해수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차운하고 일부를 새로 지어 <난후조망록(亂後吊亡錄)>을 엮었다.⁵²⁾ 희생의 현장을 직접 목도한 것이 아니기에 차운시의 경우 세부적

47) ‘自強’은 『易·乾』: “天行健, 君子以自強不息.”에서 유래하였다.

48) 『論語·先進』: “子路率爾而對曰: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 由也爲之, 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 夫子哂之.”

49) 『論語·衛靈公』: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50) 『禮記·曲禮上』: “賢者狎而敬之, 畏而愛之(…) 臨財毋苟得, 臨難毋苟免.”

51) 『論語·里人』: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52) 具思孟, <亂後吊亡錄序>, 『八谷雜稿』(총간 40) 538면: “甲午秋, 余在首陽, 一日, 訪藥翁於僑居之室, 出示其所題<亂後吊亡錄>, 且要同作. 余受而讀之, 則蓋取喪亂以來表表可記者二十八

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금산 전투에서 전사한 유팽로(柳彭老)를 애도한 시가 그렇다.

전라도 광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고경명은 호남과 통하는 주요 길목인 금산을 탈환하기 위해 1차 금산 전투에 나섰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아들 고인후(高因厚), 부하인 유팽로(柳彭老), 안영(安瑛) 등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2차 전투에 나선 충청도의 의병장 조현도 칠백의 의병과 함께 산화하고 말았다. 유팽로는 주장(主將)인 고경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함께 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경위에 대한 기록이 조금씩 다르다. 생존자의 증언으로 재구성되는 전란의 실상은 과장, 왜곡, 왜곡 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⁵³⁾

이해수는 “고경명의 말이 넘어져 달아나자 유팽로가 곧장 자기가 탄 말을 내주었는데 끝내 고경명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유팽로의 하인 또한 그 의리에 감격하여 힘써 싸우다가 죽었다”⁵⁴⁾고 하였다. 이와 달리 구사맹은 “포위를 허물고 몇 리쯤 말을 달려 빠져나온 뒤 대군이 아직 포위되었음을 알고는 ‘나 혼자 살 수는 없다’며 뒤돌아 적진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하인이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칼을 뽑아 하인의 팔을 자르고 적 한가운데로 돌진하였다. 곧 고경명이 있는 곳을 발견하여 5~6명의 적을 쏘아 죽이고는 고경명과 함께 전사하였다”⁵⁵⁾고 기록하였다.

人, 作詩以哀之. 其所以褒獎忠賢激勵儉俗之意, 至矣. 余不可以荒拙辭, 既次其韻, 復採其所未及載錄者三十二人, 續貂成篇, 用補其缺. 仍加標目, 分爲十四, 以求正于藥翁. 藥翁見而頷之, 則益自信其品彙取捨之不苟也. 後又添賦二十六人, 增標目爲十七, 萃爲一編, 共若干首. 題下書次者, 藥翁先題而次其韻者也. 書補者, 其所未錄而補其缺者也. 空無所書者, 係余私感或藥翁未及見而不次者也. 尾又繼之以八歌, 則傷親戚之不幸罹禍, 悲慟迫切之詞也. 嗚呼! 尙忍言哉! 是歲仲冬上澣, 谷翁識.” 작품의 목록(팔호 안은 작품의 수)은 死節(15), 力戰(16), 倡義(2), 死官(2), 輔弼(6), 大將(1), 扈從(6), 戰死(3), 冤死(1), 避亂(4), 被執(1), 宗室(3), 故舊(3), 孝子(5), 烈女(5), 親戚(8), 贊畫(1), 名儒(1)이다.

53) 안시성 전투에서 당 태종이 화살에 맞아 눈을 잃었다는 일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徐居正, 『東人詩話』 卷下: “牧隱<貞觀吟>, 豪健快壯, 其一聯曰: ‘謂是囊中一物耳, 那知玄花落白羽?’ 玄花, 言其目; 白羽, 言其箭. 世傳: 唐太宗伐高麗, 至安市城, 箭中其目而還. 考『唐書』, 『通鑑』 皆不載此事. 雖有之, 當時史官必爲中國諱, 無怪乎其不書也. 但金富軾『三國史』亦不載, 未知牧老何從得此.”

54) 李海壽, <甲倡義從事官柳正字彭老>, 『藥圃遺稟·亂後悼亡錄』(총간 46) 권3, 54면: “湖南倡義子能先, 臨亂還甘性命捐. 更遣其奴同日死, 芳名大節共流傳.” 原註에 “鎭山之戰, 主將高愈知馬仆而逸, 彭老即以所騎馬與之, 竟與同死. 彭老之奴, 亦感其義, 力戰而死.”라 하였다.

55) 具思孟, <亂後吊亡錄·死節·成均館學諭贈司諫柳彭老>, 『八谷雜稿』(총간 40), 539면: “明

이와 달리 고경명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적진에 뛰어들어 순국했다는 기록⁵⁶⁾도 있고 고경명에게 말을 준 이가 안영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⁵⁷⁾ 유팽로와 안영의 일화가 뒤섞여 전승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쪽이 진실이든 유팽로의 순국이 지니는 숭고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편 이해수와 구사맹의 작품 가운데 왜적에게 목숨을 잃은 평범한 이들을 추모하는 것들이 있어 또 다른 가치를 지닌다. 전공(戰功)을 세운 이들은 청사(靑史)에 이름을 남겼지만 평범한 이들의 희생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해수는 왜적에게 붙잡히자 절개를 지키려고 자결한 아낙을 추모하였고⁵⁸⁾ 구사맹은 어머니 대신 죽은 열네 살 아이의 효성을 기록하였다.⁵⁹⁾ 그 가운데 함께 순절한 두 아낙을 추모한 시는 다음과 같다.

유생 이종택의 아내 박씨와 그 이복누이인 휘양현감 충후의 딸

난리에 밝은 자태 가릴 수 없어
 쫓겨나와 정신없이 머리를 묶었네.
 깊은 못에 뛰어들어 함께 욕을 면하니
 오래도록 강가에 아름다운 바람 가득하리.
 亂離無計掩明姿，驅出蒼黃結髮時。
 躍入深淵同免辱，英風千載滿江湄。⁶⁰⁾

知急病義之先，赴敵都忘萬事捐。斬臂家奴那解主？應同忠將共流傳。” 제목의 주에 “聞倭變，與妻子訣別，從高敬命討賊。鎭山之戰，潰圍馳出數里許，問知大軍猶在圍中，曰：‘我不可獨生。’還赴賊陣。其奴控焉止之，拔劍斬其臂，突入賊中。尋得敬命所在，射殺五六賊，與敬命俱死。”라 하였다.

- 56) 朴東亮, 『寄齋史草下·壬辰日錄三·八月』(대동야승본): “正字柳彭老在外陣，聞敬命父子死，曰：‘謀人之軍事，事敗死之，禮也。我豈可獨生乎？’亦策馬赴鬪死。”
- 57) 『修正宣祖實錄』25년 7월 1일: “敬命驟馬，馬逸，從事官安瑛以所乘馬與之騎，徒步以從。從事官學諭柳彭老馬健先出，問其僕曰：‘大將免乎？’曰：‘未也。’彭老遽策馬，還入亂兵中，敬命顧曰：‘吾必不免，爾可馳出。’彭老曰：‘豈忍棄大將求活？’遂與瑛蔽敬命，同死於賊。敬命次子因厚亦赴鬪，死陣上。”
- 58) 李海壽, <猶子勸妻金氏，相國銓之曾孫也。遇賊將逼，以小刀自刎而死，嘉其全節賦之>，『藥圃遺藁·亂後悼亡錄』(총간 46) 권3, 53면: “李妻金氏稟貞純，遇賊還能不失身。性命鴻毛何足惜？顏波砥柱立彝倫。”
- 59) 具思孟, <吏家兒李禮男>，『八谷雜稿·亂後吊亡錄·孝子』(총간 40), 547면: “十四童兒孝出誠，哀號扶母淚交橫。倘將軀命能相贖，萬死甘心不愛生。” 原註에 “賊欲殺其母，禮男扶執哀號，乞以身代死，卒免母而見殺，年纔十四。”라 하였다.
- 60) 具思孟, <儒生李宗澤妻朴氏及其庶妹處子輝陽縣監忠後之女>(총간 40), 『八谷雜稿·亂後吊

박씨는 박팽년의 후손으로 대구의 낙동강 근처에 집이 있었다. 강 근처에 굴을 파서 일가가 피란하였는데 이웃집 아이가 알려주는 바람에 왜적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왜적은 달아나지 못하게 박씨와 이복누이의 머리카락을 서로 묶고는 굴속에 재물이 있는지 살피러 갔다. 그 틈에 두 여인은 함께 강에 투신하였다. 박씨는 스무 살이었고 동생은 열일곱이었다. 처음 난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 왜적을 만나면 함께 죽어 더럽힘을 당하지 말자고 약속한 것을 실천한 것이다.⁶¹⁾ 구사맹은 낙동강이 흐르는 한 두 여인의 아름다운 풍채가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한편 임란으로 공을 세웠어도 불우하게 삶을 마친 이도 있었다. 투옥되었다가 백의종군한 이순신이 그러했고 광재우도 전란 후 굴곡을 겪었다. 가장 억울한 이는 아마도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일 것이다. 김덕령은 호남에서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으나 반란을 일으킨 이몽학(李夢鶴)과 내통했다는 참소를 입어 옥사하였다. 1661년(현종 2)에 이르러서야 신원과 복직으로 김덕령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었다. 정조는 김덕령에게 ‘충장(忠壯)’의 시호를 내리고 고향의 이름을 ‘충효리(忠孝里)’로 바꾸게 하였으며 정표를 세우고 부조(不祧)의 특명을 내려 영구히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많은 이들이 김덕령의 원혼을 달래는 시를 지었는데 꿈에 김덕령의 <취시가(醉時歌)>를 얻은 감회를 읊은 권필(權鵬, 1569~1612)의 시가 유명하다.

꿈에서 작은 책 하나를 얻었는데 바로 김덕령의 시집이었다. 첫 번째 작품이 <취시가>였는데 나는 세 번이나 읽어 보고서 그 뜻을 알았다. 그 내용에 “술 취해 부르는 노래여, 이 곡조를 듣는 이 없구나. 나는 꽃과 달에 취하고 싶지 않고, 공훈을 세우고 싶지도 않다네. 공훈을 세우는 것은 뜬구름이요, 꽃과 달에 취하는 것도 뜬구름이라. 술 취해 부르는 노래여, 내 마음 아는 이 없구나. 다만 긴 칼로 밝은 임금 모시길 바라네”라 하였다. 깨고 나서 너무도 서글퍼 절구 한 수를 지었다.

亡錄·烈女』(총간 40), 547면. 原註에 “忠臣彭年之後. 家在大丘洛東江上, 穿水濱爲窟, 與一家避亂. 爲隣兒所指, 賊捉出, 慮其逸去, 捽兩髮相結, 置諸岸邊, 入窟中, 探取財物. 乘其無, 遂共躍入江中而死, 姊年二十, 妹年十七. 始聞變, 相約曰: ‘若遇賊, 當同死, 不爲所污.’ 卒如其言.”이라 하였다.

61) 宋 蘇頌, <觀文殿大學士刑部尙書贈左僕射兼侍中劉公挽辭>(3수 중 3수), 『蘇魏公文集』 권 14: “英風今已矣, 遺恨滿江湄.”

지난날 장군께서 금빛 창을 잡으셨는데
 굳센 뜻 중도에 꺾이니 운명을 어이하랴?
 땅속에 계신 아름다운 님의 끝없는 한이
 한 곡조 <취시가>에 분명하구나.
 將軍昔日把金戈, 壯志中摧奈何?
 地下英靈無限恨, 分明一曲<醉時歌>.62)

<취시가>는 김덕령이 지은 것이 아니라 김덕령의 억울한 심정을 투영한 권필의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취시가>는 술에 취하여 진솔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시인데 두보의 <취시가>에는 욕심을 버리고 도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고 김극기의 <취시가>에는 큰 뜻을 펼치지 못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이 나타난다. 호걸의 기개가 잘 드러나는 고경명의 <취시가>는 죽을 것을 알고도 전투에 임한 고경명의 의기를 잘 보여준다.

김덕령의 <취시가>는 울격이 자유롭고 시어와 의경이 중복되며 공교로운 수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호방한 기개와 불굴의 의지가 잘 드러난다. 김덕령의 공은 워낙 알려진 것이므로 권필은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원혼을 위로하는 마음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다.

목숨을 바쳐 ‘밝은 임금’을 모시고자 했던 김덕령이었으나 결국에는 어두운 임금을 만나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권필의 생각이다. 이몽학의 난에 연루된 것으로 무고를 당한 광재우, 고언백, 홍계남은 구명되었으나 김덕령은 가혹한 고문을 동반한 친국을 여섯 차례나 당하였고 유성룡 등이 구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옥중의 이슬이 되고 말았다.

권필은 포의에 불과했으나 출중한 학식과 글재주로 사론(士論)을 이끌었다. 친구인 구용(具容)과 함께 임란 발발의 책임자인 유성룡과 이산해를 탄핵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⁶³⁾ 권필이 보기에 김덕령은 혼란한 임금과 무능한 대신들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권필

62) 權譯, <夢得一小冊, 乃金德齡詩集也。其首一篇曰醉時歌, 余三復得之, 其詞曰: “醉時歌, 此曲無人聞。我不要醉花月, 我不要樹功勳。樹功勳也, 是浮雲; 醉花月也, 是浮雲。醉時歌, 無人知我心, 只願長劍奉明君。” 既覺悵然悲之, 爲作一絕>, 『石洲集』(총간 75) 권7, 62~63면.

63) 권필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서는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참조.

의 시 덕분에 김덕령의 후손들이 정포 근처에 취가정(醉歌亭)을 세우고 <취시가>를 편역으로 걸어 원혼을 달랜 것이 다행이라 할 것이다.⁶⁴⁾

권필의 시에는 추모의 마음뿐 아니라 무능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숨어 있다. 김덕령처럼 공을 세우고도 억울한 처벌을 받은 이가 여럿이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전란의 수습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전란의 참상을 슬퍼하거나 사실적으로 기록한 시와 마찬가지로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에도 비판의 정신이 깃들기 마련이었다.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기생을 애도하다

여러 정서장군은 모두 이름난 벼슬아치인데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사내가 몇 명이나 되는가?
 다만 죽음으로 의리 지킬 줄 아는 아가씨가 있을 뿐인데
 일찍이 궁궐에서 은혜를 입은 영광도 없다네.
 征西諸將擢名卿, 幾箇男兒擁重兵?
 惟有女郎知死義, 九重曾不荷恩榮.⁶⁵⁾

이문학관(吏文學官)을 지낸 이원형(李元亨)은 허균의 문객으로서 시를 잘 지어 권필의 칭찬을 받은 인물이다.⁶⁶⁾ 임란 때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많은 이들과 함께 피난의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이 시는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기생을 애도한 시인데 순절의 경위를 알 수 없기에 해석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군과 기생을 비교한 것을 보면 논개와 같은 행적을 칭송한 것이 아닌가 싶다. 논개에 대한 기록은 『어우야담』에 처음 보이는데 출전에 따

64) 宋近洙, <醉歌亭記>, 『立齋集』(충간속집 133) 권12, 265~266면: “光州之石底坊, 有金將軍忠壯公之里。我正宗大王, 以忠孝二字表其閭, 又別定奉祀人主之, 地於是乎益顯矣! 今上庚寅, 諸雲仍就其舊址旁, 建一小亭, 扁以醉歌。盖石洲權公, 嘗夢得將軍<醉時歌>一篇, 其詞曰(…)其幽明間蟠鬱蘊結之辭, 當爲燕、趙悲歌之流, 而權公足之曰(…)異世相感, 自不禁志士之淚, 此地此亭之此名, 不亦宜乎!”

65) 李元亨, <悼節死妓>, 『大東詩選』 권4, 485면.

66) 許筠, <惺叟詩話>, 『惺所覆瓿稿·說部四』(충간 74), 권25, 368면: “扶安倡桂生, 工詩善調彈。有一太守狎之, 去後, 邑人立碑思之。一夕佳月生, 彈琴於碑石上, 邇而長歌。李元亨者, 過而見之, 作詩曰: ‘一曲瑤琴怨鷓鴣, 荒碑無語月輪孤。峴山當日征南石, 亦有佳人墮淚無。’ 時人謂之絕倡。李, 余館客也。自少與余及李汝仁同處, 故能爲詩。他作亦有好事者, 石洲喜其人而稱之。”

라 기록이 달라 신분이 기생인지 서녀인지도 불분명하다.

정서장군(征西將軍)은 동한(東漢), 위(魏), 진(晉)의 관직인데 정서대장군 풍이(馮異)는 광무제(光武帝)를 도와 적미군(赤眉軍)을 물리치고 관중(關中)을 평정한 공으로 양하후(陽夏侯)에 봉해졌다. 경병(耿秉)도 흉노를 격파하여 미양후(美陽侯)에 봉해졌다. 정서장군 출신으로 유명한 장군이 많아 젊은 시절의 조조(曹操)도 정서장군이 되어 그 이름을 묘비에 새기고 싶어했다.⁶⁷⁾

그러나 모든 정서장군이 공을 세운 것은 아니다. 하후연(夏侯淵)은 한중(漢中)을 지키다가 촉한(蜀漢)의 황충(黃忠)에게 패하여 죽었다. 뒤를 이은 장합(張郃)은 마속(馬謖)을 무찔러 제갈량의 군대를 한중으로 퇴각시킨 공으로 정서장군이 되었으나 촉군을 추격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동진(東晉)의 정서장군 경량(庾亮)은 북벌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안서장군으로 강등하였고 뒤를 이은 환온(桓溫)은 세 차례 북벌을 실행하였으나 2차 때 잠시 낙양을 수복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패퇴하였다.

유명한 장군도 적을 무찌르기 쉽지 않은데 임금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기생이 목숨을 바쳐 의리를 세웠으니 그 공이 장군보다 크다는 것이 이 원형의 생각이다. 권율, 이순신, 김시민 등 공을 세운 장수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무능한 장군들 때문에 일본군을 물리치지 못한 현실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이름도 전하지 않는 기생의 절개를 칭송함으로써 지배층의 무능과 민초의 희생을 대조하는 효과를 거둔 작품이라 하겠다.

IV. 일상의 회복에 대한 희망

왜군에 의해 터전을 점령당한 백성들은 오랜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전란이 끝났어도 황폐해진 옛 터전을 복구할 길이 막막하였고 새로운 터전을 일구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별과 이산 등으로 가족이 헤어지고 물질적

67) 『三國志·魏書·武帝紀』 권1: “冬, 作銅雀臺。” 南朝 宋 裴松之가 『魏武故事』를 인용하여 “後徵爲都尉, 遷典軍校尉, 意遂更欲爲國家討賊立功, 欲望封侯作征西將軍, 然後題墓道言‘漢故征西將軍曹侯之墓’, 此其志也。”라註하였다.

토대 또한 대부분 파괴되어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웠다. 어떤 이는 과거를 잊고 애써 마음의 평정을 구하려 하였고 어떤 이는 불완전하나마 안정을 되찾은 것에 기뻐하였다.

전란이 끝났어도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들도 적지 않았는데 송익필(宋翼弼, 1534~1599)의 경우가 그러했다. 송익필의 할머니 감정(甘丁)은 성균관사예를 지낸 안돈후(安敦厚)의 서녀(庶女)였다. 감정은 송린(宋璘)과 혼인하여 송사련(宋祀連)을 낳았고 송사련은 송한필과 송익필 등 다섯 아들을 두었다. 안돈후의 아들은 좌의정을 지낸 안당(安瑯)이다. 안씨 집안은 서출인 송씨 집안을 가족처럼 대했으나 송사련은 안당의 출세를 시기하여 안당의 아들, 즉 자신의 고종사촌인 안처겸(安處謙)을 역모로 무고하였다. 이로 인한 신사무욕으로 안당과 안처겸은 사형을 당했고 안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반면에 송사련은 공신에 책봉되고 당상관에 오르는 등 30여년간 부귀영화를 누렸다. 덕분에 송익필도 유복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명문자제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특히 이이, 성혼과 절친했으며 김장생에게 예학을 전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1586년 동인(東人)이 배후가 되어 안씨 집안에서 송사를 일으켰고 결국 안처겸의 역모가 조작임이 밝혀졌다. 이에 송익필의 일가는 안씨 집안의 노비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사형보다 심한 처벌이었기에 송익필의 일가 70여 명은 이름을 바꾸고 도피 생활을 하였다. 1589년 기축 옥사로 동인이 몰락하자⁶⁸⁾ 잠시 신분이 회복되었으나 피신처를 제공했던 정철이 유배되는 바람에 옛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결국 건디지 못한 송익필은 1591년 자수하여 남해(南海)에 유배되었다가 평안도 희천(熙川)으로 배소를 옮겼다. 유배 중에 임란을 당한 송익필은 산속으로 피신하였다. 1593년 귀양에서 풀려났으나 일정한 거처 없이 친지의 집을 전전하다가 1596년 충청도 면천(沔川)의 마양촌(馬羊村)에 있는 김진려(金進礪)의 집에서 졸하였다.

난리 후에 임시로 살며 누군가에게 부치다

68) 송익필이 西人의 참모로서 자신과 집안사람들을 노비로 환속시키려는 李滉 등 東人에게 복수하기 위해 鄭汝立 모반 사건을 조작했다는 설도 있다.

쓸데없이 남은 옛 물건은 귀밑의 흰 머리카락뿐인데
 사립문 한 번 닫아 놓으니 모든 일이 드물다.
 그대 생각은 개울처럼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 없는데
 속세의 인정은 달과 같아 쉽게 등글어지고 이지러진다.
 빈 연못 큰 하늘에 연꽃이 처음 피고
 뒤덮은 숲 긴 산에 열매가 벌써 살졌구나.
 세월 흘러감에 속마음 진실로 괴로운데
 고요함 속의 진실한 의미를 다만 마음으로만 안다.
 空餘舊物鬢邊絲，一掩柴扉萬事稀。
 君意如川無斷續，世情同月易圓虧。
 池虛天大荷初破，林壓山長果已肥。
 時序變遷懷正苦，靜中真味只心知。⁶⁹⁾

전란이 끝났어도 정주할 곳을 얻지 못해 남의 집에 얹혀살며 지은 시이다. 도망, 유배, 피난의 과정에서 남은 것은 늘어버린 몸뚱이 하나뿐이다. 유일한 낙은 젊은 시절의 친구들과 시를 주고받은 것이다. 누구에게 준 시인지 알 수 없으나 ‘군(君)’이라는 표현을 보면 성훈(成渾, 1535~1598)과 같은 절친에게 보낸 시일지도 모른다.⁷⁰⁾ 성훈 또한 임란 때 파주를 지나는 선조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아 불우한 처지였다.

전쟁의 와중에도 정치 다툼은 여전하여 권세는 달처럼 차고 기운다. 인간사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것은 친구와의 우정뿐이다. 연못에 비를 내려주어 해마다 연꽃을 피게 하는 하늘이나 숲의 뿌리를 보호하여 언제나 열매를 맺게 하는 산은 고마운 친구를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사다난한 지난 일을 회고하면 고통스럽기 그지없으나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도리를 궁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자득의 경지를 가리키는 것⁷¹⁾이지만 ‘심지(心知)’가 벗을

69) 宋翼弼, <亂後寓居寄人>, 『龜峯集』(총간 42) 권2, 405면.

70) 金集은 송익필의 시를 수십 편 차운하였는데 이 시에 대한 차운시는 다음과 같다. 金集, <次亂後寓中寄人>, 『愼獨齋遺稿』(총간 82) 권2, 272면: “亂來贏得鬢如絲，棲息稍安世念稀。始識朋情無間隔，笑他天月有盈虧。秋深籬落黃花滿，稻熟溪郊紫蟹肥。節物變遷兵火後，旄丘心思復誰知?”; 金集, <次龜峯詩序>, 『愼獨齋遺稿』(총간 82) 권2, 263면: “余素昧詩句，絕不吟哦。老來窮寂中，得見龜峯詩，愛其調格，試步其韻。非敢爲詩，要以破寂耳。”

71) 唐 白居易, <對鏡>, 『全唐詩』 권450: “靜中得味何須道? 穩處安身更莫疑.”; 宋 邵雍, <偶

가리키기도 하므로 친구만이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성리학과 예학에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시에도 뛰어났던 송익필의 경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기구한 삶에서 비롯하는 처연함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⁷²⁾

송익필과 달리 임란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들은 직분을 다한 뒤 옛집이나 새로운 터전으로 돌아갔다. 조호익(曹好益, 1545~1609)은 임란 때 소모관(召募官)으로서 의병을 모집하고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워 녹피(鹿皮)를 하사받았다. 형조정랑, 절충장군으로 승진하였고 1593년 평양성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전란 후에는 안주(安州)와 정주(定州)의 목사를 지냈는데 55세 때인 1599년 9월에 경북 영천(永川)의 도촌(陶村)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냈다.⁷³⁾

난리 후에 비로소 도촌에 우거하다

중묘와 사직의 위기가 막 평정되었는데
강과 산도 씻기어 새로워졌네.
무너진 집 구했을 뿐이지만 편안해지니
이 몸이 존재함을 바야흐로 깨닫네.
宗社危初定, 江山洗欲新.
居然得破屋, 方覺有攸身.⁷⁴⁾

난리가 평정되고 비가 내려 강산도 새로워졌다. 비록 무너진 집이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고마울 따름이다. 옛 일상을 회복한 듯한 느낌을 ‘거연(居然)’으로 표현하였다. 이리저리 피란길을 떠든 정언눌(鄭彦訥)은

書>, 『擊壤集』 권3: “靜中眞氣味, 所得不勝多.” 元 張弘範, <題保定抱陽山寺>, 『淮陽集』: “終日杜門稀萬事, 此中滋味少人嘗.”

72) 송익필 한시에 나타난 ‘獨’의 양상에 대해서는 김보경, <구봉 송익필의 시세계와 ‘獨’의 경계>, 『한국한시연구』 제19호, 한국한시학회, 2011, 119~146면 참조.

73) <年譜>, 『芝山集·附錄』(총간 55) 권1, 538면: “(萬曆)二十七年己亥_先生五十五歲(…)九月, 寓居永川郡西陶村_先生自蒙恩赦, 久有鄉關之思, 而出沒干戈, 未遑遂志. 至是, 始遷寓陶村.” 조호익은 영천의 도암書院에 배향되었고 영천시 대창면에 芝山故宅과 조호익의 묘가 남아 있다.

74) 曹好益, <亂後始寓陶村>, 『芝山集』(총간 55) 권1, 447면.

“취하면 천 일도 적게 느껴지고 난리를 겪으면 몸뚱이 하나도 많다(醉來千日少, 亂後一身多)”는 구절로 칭송을 받았다.⁷⁵⁾ 술에 취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난리를 당하면 식구는커녕 제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조호익도 정신없이 살다가 겨우 안정을 찾아 자기 몸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전란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나온 실제 경험이 없으면 나오기 어려운 표현이다.

강가의 집에서 우연히 읊다

내가 불과 연기를 끊은 것을 친구들이 딱하게 여겨
함께 낙동강 변에 집을 지었네.
술잎을 먹으면 배고픔 사라지고
맑은 샘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네.
고요함 지키며 거문고 타니 마음이 가라앉고
창 달고 숨 고르니 뜻이 깊어지네.
백 년이 다 지나가 양을 잃게 되면
날 비웃던 이들 도리어 나를 신선이라 부르리.
朋友憐吾絕火煙, 共成衡宇洛江邊。
無飢只在啗松葉, 不渴惟憑飲玉泉。
守靜彈琴心澹澹, 杜窓調息意淵淵。
百年過盡亡羊後, 笑我還應稱我仙。⁷⁶⁾

곽재우(郭再祐, 1552~1617)는 경남 의령의 외가에서 태어나 1585년 정시에 합격했으나 답안에 거스르는 뜻이 있다고 하여 합격이 취소되었다. 이에 과거를 포기하고 의령의 남강 변에 정자를 짓고 여생을 보내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임란을 만나 의병을 일으켰는데 북을 매달아 사람을 모았다는 560년 된 느티나무가 지금도 남아 있다.

75) 梁慶遇, <鄭彥訥能詩>, 『霽湖集·詩話』(총간 73) 권9, 497~498면: “壬辰以後, 遭亂漂蕩, 有‘醉來千日少, 亂後一身多’之句, 聞者皆稱能做出古人所未道之語. 姚合贈劉又詩一聯曰: ‘避時曾變姓, 逃亂似嫌身.’ 與一蚩之意略同, 而一蚩不喜看詩, 必不襲姚合之句. 『金剛經』頌曰: ‘富嫌千口少, 貧恨一身多.’ 蓋出於此也.”

76) 郭再祐, <江舍偶吟>(3수 중 1수), 『忘憂集』(총간 58) 권2, 530면. 『大東詩選』(권3)에는 제목이 <退居琵琶山>으로 되어 있다.

곽재우는 큰 공을 세웠음에도 1596년 이몽학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의심은 풀렸으나 일본과 화친을 주장하다가 추국을 받기도 했고 사직소를 올렸다가 함부로 물러나려 한다는 탄핵을 받아 1600년 영암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1602년 해배 후 현풍의 비슬산에 들어가 솔잎, 밤, 대추 등을 먹는 벽곡(辟穀)을 실천하였다. 같은 해 창녕의 창암 근처에 망우정(忘憂亭)을 짓고 신선술을 익히면서 망우선자(忘憂仙子)라 자호(自號)하였다.⁷⁷⁾

위 시에는 화식(火食)을 끊고 솔잎과 샘물을 먹는 외단술(外丹術)뿐 아니라 명상과 조식(調息) 등의 내단술(內丹術)⁷⁸⁾에도 몰두한 모습이 잘 나타난다. 신선술을 비롯한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아등바등 애쓰다가 정작 삶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⁷⁹⁾이 곽재우의 생각이다. 곽재우는 도술을 부릴 줄 안다는 전설을 남겼지만⁸⁰⁾ 수양의 목적이 속세의 업매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실 세계를 초월하려는 도가의 신선술에 관심을 보인 이들은 적지 않았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이는 드물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온몸을 바쳤으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은 세상에 대한 실망감이 이런 생애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77) 『忘憂集·年譜』(총간 58), 498~499면: 萬曆十三年乙酉, 是歲先生年三十四, 中庭試第二, 乃唐太宗教射殿庭論也. 語意有觸忤, 命罷其榜(…) 萬曆十七年己丑, 服闋後, 遂廢舉子業. 作亭于宜寧歧江上, 坊名遯地, 漁釣自娛, 若將終身(…) 萬曆三十年壬寅, 賜環入琵琶山, 餐松辟穀. 又就靈山滄巖, 新築江亭, 扁以忘憂, 永謝烟火, 蕭然若一道人也.”; 郭再祐, <江舍偶吟>(2수 중 2수), 『忘憂集』(총간 58) 권2, 529면: “下有長江上有山, 忘憂一舍在其間. 忘憂仙子忘憂臥, 明月清風相對閑.”

78) 『老子』: “致虛極, 守靜篤.”

79) ‘亡羊’은 이것저것 다 하느라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列子·說符』: “楊子之鄰人亡羊, 既率其黨, 又請楊子之豎追之. 楊子曰: ‘嘻! 亡一羊, 何追者之衆?’ 鄰人曰: ‘多歧路.’ 既反, 問: ‘獲羊乎?’ 曰: ‘亡之矣.’ 曰: ‘奚亡之?’ 曰: ‘歧路之中, 又有歧焉, 吾不知所之, 所以反也.’ (…)

80) 洪重寅 編, 『東國詩話彙成·本朝·郭再祐』 권15: “公少從南冥學, 有奇節, 個儻不羈. 棄舉子業, 布衣窮居, 篋笠芒鞋, 漁釣自娛. 壬辰倭亂, 起兵討賊, 常着紅衣, 挺身先之, 賊號曰紅衣天降將軍. 及賊退曰: ‘養貓, 所以捕鼠. 今賊已平, 無所事, 可以去矣.’ 學方術, 入山絕穀. 公從事京中, 唯食松葉而已. 嘗入琵琶山, 餐松辟穀. 後歸靈山滄巖, 永謝烟火. 作詩曰: ‘朋友憐吾絕烟火, 共成衡宇浴江邊. 無飢只在啗松葉, 不渴唯憑飲玉泉. 守靜彈琴心澹澹, 杜窗調息意淵淵. 百年盡過亡羊後, 笑我還應稱我仙.’ 公之事蹟, 頗與張留侯類, 奇哉! 承旨朴守弘, 未第時, 往訪之, 仍設酌飲四五盃, 俄而取酒器來, 傾耳瀉之, 酒從耳孔盡出. 公成功之後, 超然遠引入山, 辟穀至經年不食, 而身體輕健, 豈非所謂神者乎!”

조호익이나 객재우처럼 난후에도 관직에 있으면서 국운을 되살리려 노력했던 이들과 달리 아예 벼슬에 관심을 두지 않은 의병장도 있었다. 울산의 선비였던 이경연(李景淵, 1565~1643)은 임란이 일어나자 가족을 피신시키고 의병을 일으켰다. 1594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정유재란 때도 의병장으로 활약하였으며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600년에 전란이 종식되자 이경연은 관직을 버리고 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옛집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 손수 심은 오동나무만이 멀쩡하였다. 이에 동화당(桐華堂)을 짓고 ‘제월(霽月)’이라 자호(自號)하고는 거문고와 서책으로 소일하다가 병으로 졸하였다.⁸¹⁾ 묘소는 울산시 북구 농소동 동화산 자락에 있다.⁸²⁾

난리가 평정된 뒤 옛집으로 돌아오다.

병서를 다 읽고 (철 따라) 바뀌는 꽃 즐기다 보니
 동화당 가장자리에 석양이 기우네.
 밥 짓는 연기 끊겼다 이어지는 곳은 행인이 머무는 역원이고
 불조심 소리 있다가 없다 하는 곳은 늙은 병졸의 집이라네.
 아름다운 땅 찬란한 놀은 수 놓은 비단을 펼치고
 하늘 북관의 은혜로운 이슬이 뽕나무와 삼대에 내리네.
 8년 동안 겪은 일에 봄날은 꿈만 같은데
 돌아와 전원에 누우니 의욕이 김처럼 얇아지네.
 讀罷兵書翫易花, 桐華堂畔夕陽斜.
 炊烟斷續行人院, 警火有無老卒家.
 勝地明霞開錦繡, 均天恩露降桑麻.
 八年經事春如夢, 歸臥田園意薄紗.⁸³⁾

81) 李景淵, <桐華堂述懷>: “樹木還爲愛惜人, 霽天梧月倍生新. 曾經八載龍蛇樹, 留待後天鳳鳥仁. 虛腹風生文武韻, 禿頭雨洗海山塵. 木吾木也亭同木, 華實兼全主葉秦.”

82) 李晚燾, <嘉善大夫行鏡城判官李公墓碣銘>, 『響山集』(총간속집 144) 권13, 424~425면: “蔚山有義士, 姓李, 名景淵, 字汝澄. 少有異質, 好讀書, 多膂力, 善射. 及賊至, 兵使李珪望風走, 郡守李彥誠戰敗逃. 公曰: ‘吾家世忠義, 殉身報國, 此其時也.’ 遂募家僮及死士若干, 擊殺散賊於陣後. 時年二十八 (….) 戊戌, 天將楊鏞敗績於島山, 賊鋒充斥及安骨山. 公挺身曉衆曰: ‘人無不死, 死則當爲義鬼.’ 衆感泣從之. 乃於山後阻閣處設奇伏, 選賊於箭灘, 搏戰奪賊劔反, 斬三十餘級. 一境自是賴安. 於是築室東山下, 名曰霽月, 條然以琴書自娛. 御史韓液諫, 兵使朴晉上其事, 宣廟嘉之, 授丑山萬戶, 鏡城判官, 龍驤衛副護軍, 錄宣武二等功, 後壽陞嘉善階.”

전쟁이 끝났는데도 병서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전란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역화(易花)’는 매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⁸⁴⁾ 매화를 완상하며 한적함을 즐기는 한편 역수(易數)를 헤아려 앞날의 번고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내었다.

역원의 밥 짓는 연기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와 비슷하다. 길에 사람이 많아지고 역원에 연기가 자욱하면 혹시 피란민이 몰려든 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불안하다. 참전의 경험이 있는 늙은 병졸은 불조심에 강박을 보인다. 아궁이의 불씨에도 병화(兵火)를 연상하는 모양이다. 다행히 아름다운 노을이 경치를 수놓고 한해 농사 또한 풍년이다.⁸⁵⁾

이제는 평화 속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 그만이었지만 8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이경연은 지난 세월의 의기(意氣)가 조금씩 열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세월이 흐르면 전란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 것이며 언젠가는 옛 삶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한가하게 여생을 보내려는 은자의 마음으로 형상화되었다.

임란을 극복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고향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은 임란 중에 중임을 맡아 동분서주했고 종전 이후로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다행히 가족 또한 무고하였는데 잠시나마 가족과 단란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난리가 일어난 뒤로 십 년 동안 말 안장에 있었는데 경자년 세월에 우연히 집에 있게 되어 고요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남에게 써서 보이다

기쁘구나, 오늘 밤에 잠들지 않고 앉았는데
나와 두 아들 모두 한 해를 잘 보냈구나.
막내는 노력하여 표범처럼 변했는데

83) 李景淵, <亂定後歸故庄>, 『大東詩選』 권3, 463~464면. 『大東詩選』에 작자의 이름이 “金景淵”으로 잘못되어 있다.

84) 邵雍, <梅花易數·觀梅占>: “辰年十二月十七日申時, 康節先生偶觀梅, 見二雀爭枝墜地. 先生曰: ‘不動不占, 不因事不占. 今二雀爭枝墜地, 怪也.’ 因占之(…) 斷之曰: ‘詳此卦, 明晚當有女子折花, 園丁不知而逐之, 女子失驚墜地, 逐傷其股.’”

85) 晉 陶潛, <歸園田居>(5수 중 2수), 『陶淵明集』 권2: “相見無雜言, 但道桑麻長. 桑麻日已長, 我土日已廣.”

늙은이는 흐릿해져⁸⁶⁾ 세 번 잠잔 누에⁸⁷⁾가 되었구나.
 바람과 먼지에 분주한 일 많았는데
 가족끼리 단란한 것은 또한 우연이겠지.
 이웃 답에게 새벽을 재촉 말라 전하노니
 봄 눈이 거의 머리끝에까지 이르렀다네.
 可憐今夜坐無寐, 吾與二郎俱長年.
 少子勉哉豹一變, 老夫髦矣蠶三眠.
 風塵奔走猶紛若, 骨肉團圓亦偶然.
 傳語隣雞莫催曉, 九分春雪到頭邊.⁸⁸⁾

이항복은 임란 때 신성군(信城君)과 정원군(定遠君)을 평양까지 호종한 뒤 다시 의주까지 선조를 호종하였다. 광해군을 배행하여 홍주와 전주에 주둔하기도 했다. 왜란 전후로 다섯 번이나 병조판서를 맡았으며 1598년 우의정, 1599년 좌의정을 거쳐 1600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이 시는 1600년 세월에 쓴 것이니 가장 영화로웠던 시기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낸 부자가 함께 밤을 지새우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이항복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 성남(星男, 1578~?)은 음보로 광흥창 수가 되었고, 작은아들 정남(井男)은 사마시 합격 후 군수를 지냈다.⁸⁹⁾ 작은아들의 성취를 특기한 것과 전란 중 작은아들이 꿈에 나타난 일을 읊은 것⁹⁰⁾을 보면 둘째에 대한 정이 애뜻했던 모양이다. 작은아들 생일에 지은 시에는 제법 글씨를 쓸 수 있게 된 큰아들과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작은아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⁹¹⁾ 1602년에 지은 시에도 두 아들과 이야

86) 원문의 ‘髦’는 늙어서 정신이 흐릿하다는 뜻의 ‘耄’의 오기로 보인다.

87) 누에가 고치를 만들기까지 서너 번 탈피하는 동안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인다. 노년을 가리킨다.

88) 李恒福, <亂後十年, 長在鞍馬, 庚子除夕, 偶得在家, 悄悄守歲, 書示井男>, 『白沙集』(총간 62) 권1, 169면.

89) 申欽, <龍城府院君李公神道碑銘>, 『白沙集·附錄』(총간 62) 474~475면: “男二人, 長星男, 蔭仕, 爲廣興倉守, 次井男, 壬子司馬, 亦仕爲郡守.” 여기서 壬子는 1612년이다.

90) 李恒福, <夢小兒>, 『白沙集』(총간 62) 권1, 169면: “去國一身危, 懷歸鬢髮絲. 小兒啼入夢, 王事杳難期.”

91) 李恒福, <井男生日獻題>, 『白沙集』(총간 62) 권1, 157면: “富家生女百憂集, 貧家生男萬事足. 日費千錢供婿難, 只將一經教子讀. 我今生男幸無女, 大者能書少能揖. 誰家養女作孝婦? 我欲送男爲慢客. 守家扶醉兩無憂, 歸享他年浣花樂.”

기를 주고받는 아버지의 자상함이 나타난다.⁹²⁾

작은아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군자의 소양을 갖추었지만⁹³⁾ 그동안 아버지는 늙어 정신이 흐릿해졌다. 이 시를 지을 때 이항복은 45세밖에 되지 않았으나 전란 극복에 십 년 가까운 세월을 바쳤기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이다. 마지막 구절은 고생 때문에 머리 대부분이 세었다는 뜻이다.⁹⁴⁾

오성부원군에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니 일신의 영화는 다 누린 셈이었다. 가족들까지 무탈하니 이보다 더한 행복이 없겠지만 늙음만은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닭이 울지 않는다고 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만전춘별사>나 노쇠함을 슬퍼하는 시조에 보이는 관습적인 표현으로 기쁨 속의 서글픔을 함축하였다. 그러나 늙음을 한탄하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전란과 같은 재난이 없는 일상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V. 결론

1592년 4월에 시작된 왜란은 1598년 12월에야 종식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란 이후의 한시에는 긴 전란 끝에 되찾은 평화에 대한 감사, 전사자와 희생자에 대한 존경과 추모, 일상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어렵게 되찾은 소박한 일상은 채 40년을 가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북방의 만주족이 조선 땅을 침략하였다. 1636년 12월 28일에 시

92) 李恒福, <壬辰六月, 扈駕西幸, 途中作>, 『白沙集』(총간 62) 권1, 160면. 原註에 “壬寅夏日, 余謝事閑居. 一日, 與兒輩論詩, 要見余平日所賦, 率爾把筆, 茫然百不記一, 豈意亂後精神若是其耗也! 因錄若干篇, 以應其動. 空其下數十幅, 將附亂後所得, 編成一卷云.”이라 하였다.

93) ‘豹變’은 표범이 털갈이를 하여 무늬가 뚜렷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군자가 선을 실천하고 악을 물리쳐 미덕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 『易·革』: “上六, 君子豹變, 其文蔚也. 小人革面, 順以從君也.” 孔穎達의 疏에 “上六居‘革’之終, 變道已成, 君子處之, 雖不能同九五革命創制, 如虎文之彪炳. 然亦潤色鴻業, 如豹文之蔚縟.” 程頤의 傳에 “君子從化遷善, 成文彬蔚, 章見於外也.”라 하였다.

94) 宋 劉克莊, <挽唐伯玉常卿>(2수 중 1수), 『後村集』 권13: “憂時兼悼友, 白却九分頭.”; 宋 陸游, <讀唐人愁詩戲作>(5수 중 4수), 『劍南詩藁』 권80: “我輩情鍾不自由, 等閑白却九分頭. 此懷豈獨騷人事? 三百篇中半是愁.”

작되어 1637년 2월 24일 삼전도의 굴욕으로 마무리되었으니 병자호란은 조선 땅이 유린당할 시간조차 부족했던 일방적인 전쟁이었다.

병자호란 때는 권율, 김시민, 이순신 같은 명장도 없었고 조헌, 고경명, 광재우, 휴정, 유정 등과 같은 의병의 의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란의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왜란 이후 전란 발발의 책임을 지는 이도 없었고 논공행상에도 문제가 많았다. 당쟁의 폐단 또한 그치지 않았으니⁹⁵⁾ 병자호란 때 국난 극복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삼학사(三學士)의 의기가 빛을 발했으나 속환(贖還)한 부녀자에 대한 홀대⁹⁶⁾에서 보듯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혁 또한 요원하였다.

세월이 흘러 결국 조선은 다시 침략한 일제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이 시기 시인들은 다시 임진왜란을 회고하며 구국의 심정을 노래하였다. 특히 매패노가 득세하고 이순신 같은 충신이 사라진 현실을 아쉬워하였다. 황현은 충무공을 되살려 왜적을 무찌르고 서양을 몰아내기를 염원하였다.⁹⁷⁾ 거북선이 아니라 계책의 신묘함에 전승의 비결이 있다며 충무공을 칭송한 김택영은 왜구들이 학질을 막으려고 이순신의 이름을 등에 쓰고 다닌 일화를 그리워하였다.⁹⁸⁾

95) 金尙容의 순절을 둘러싼 논란이 하나의 예가 된다. 『仁祖實錄』 권35, 15년 10월 28일: “今有一種人言謂: ‘臣父吸南草失火, 誤致延燒之禍.’ 臣父平生, 疾惡南草, 未嘗近口, 此舉世之所共知也. 安有死生迫頭之際, 反吸平生所疾惡之物哉? 臣父脫所着衣, 付與下人, 蓋已定自決之意, 留以爲復也.”

96) 『仁祖實錄』(권36, 16년 3월 11일)에 따르면 청나라에서 돌아온 아내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태가 사대부가에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명길 이 이를 비판하며 사대부가에서 요구하는 이혼을 허락하지 말라고 주청하였고 인조도 이 의견을 따랐으나 사대부가에서는 모두 새장가를 들고 속환한 부녀자와 다시 합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해당 기사의 史評에 보이는 “復取失節之婦, 事父母而奉宗祀, 生子孫而繼家世, 寧有是理? 噫! 壞百年之國俗, 擧三韓而夷之者, 嗚吉也. 可勝痛哉!”를 통해 당대 지배층의 고루한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97) 黃炫, <李忠武公龜船歌>, 『梅泉集·甲申稿』(총간 348) 권1, 413면: “九原可作忠武公, 囊底恢奇應有術. 創智制勝如龜船, 倭人乞死洋人滅.”

98) 金澤榮, <雜言十>, 『韶濩堂詩集定本』(총간 347) 권8, 326면: “李忠武公用龜船破日本, 此世之恒言也. 然忠武公之於日本, 所以能百戰而百勝者, 乃其制勝之計策, 千變萬化, 愈出愈奇之所爲, 豈龜船之爲哉! 如果龜船之爲也, 則以日本人之精巧, 豈不朝受敗, 夕倣製乎! (俗或謂: 龜船, 如今西洋之潛艇, 非也. 龜船, 詳見李公行錄, 何嘗有沒水之形制哉!)” 金澤榮, <曹公亭歌, 爲費範九作>, 『韶濩堂詩集定本·辛酉稿』(총간 347) 권6, 226면: “往者萬曆倭寇東, 韓臣有李忠武公. 奇鞞妙畧似神鬼, 殺倭滿海波瀾紅. 當時倭兒患痲疾, 背書其名勝藥功.”

오랜 고난 끝에 광복을 되찾았으나 임란 때와 달리 과거로의 복귀나 일상의 회복을 염원하는 한시들은 창작되지 않았다. 순절한 황현과 이역에서 생을 마감한 김택영 등을 마지막으로 한시 또한 우리 문학의 영역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2. 논문

김보경, 『구봉 송익필의 시세계와 ‘獨’의 경계』, 『한국한시연구』 제19호, 한국한시학회, 2011, 119~146면.

김원준, 『임란기 약포 시에 나타난 시적 형상화와 그 특징』, 『어문논총』 제7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59~189면.

김풍기, 『전란의 상처와 치유로서의 글쓰기: 허균의 『학산초담』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43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9~33면.

백진우, 『전란의 기억과 문학적 극복: 정묘·병자호란 이후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문학적 현상에 주목하여』, 『동양고전연구』 제68집, 동양고전학회, 2017, 69~97면.

이남면, 『병자호란의 기억, 그 시적 형상화』, 『동방한문학』 제68집, 동방한문학회, 2016, 151~182면.

정원표, 『임진왜란을 조명한 후대의 회고 한시』, 『한국한시연구』 제1호, 한국한시학회, 1993, 211~238면.

신장섭, 『임란의 체험을 통한 시적 현실과 그 양상』, 『어문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156~176면.

최고경, 『藥圃 鄭琢의 전쟁 시를 통한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 분석』, 『군사』 제11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229~254면.

Aspects of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Imjin[壬辰] War in Sino-Korean Poetry

Gu, Bon-hyeon

War is the greatest disaster that includes death, separation, famine, and disease. Paradoxically, war becomes an important subject of literature because it ravages the mind and emotions of people.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at creating literary works is one of the efforts to cure the aftereffects of the war by examining the Sino-Korean poetry created by poets who experienced the Imjin[壬辰] War in person.

Sino-Korean poetry containing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the Imjin War is divid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The first is to express the horrors of the war. These poems show the aspect of using the method of contrasting the immutable natural objects with the ruined human traces, and the method of reusing the expressions of the former works that dramatically visualized war experiences such as Dubo[杜甫]'s poems.

The second category is the literary works that commemorate the dead and the victims of Imjin war. Although many are dedicated for military commanders and soldiers who have died after establishing distinguished war service, some poets commemorated the unknown soldiers, virtuous women, filial offsprings who sacrificed for their country and family.

The third category is the literary works that contain the desire for getting back to normal life. In these works, there is a sense of security of survival, unfamiliarity with the new home and surround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ast, and anxious hopes for the future.

The above three types of works can be understood in various ways to heal the pain caused by war. It is necessary to record the horrors of the war to avoid repeating the same tragedy in future generations, and to commemorate the victims of the war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he recognition that building a new base of life is at least a responsibility for the victims can also be seen as part of an effort to overcome the sadness of war.

keywords: Disaster, War, Imjin[壬辰] War, Sino-Korean Poetry, Experience, Memory, Condolence, Getting Back to Normal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2021. 11. 10.

게재결정: 2021. 11. 10.